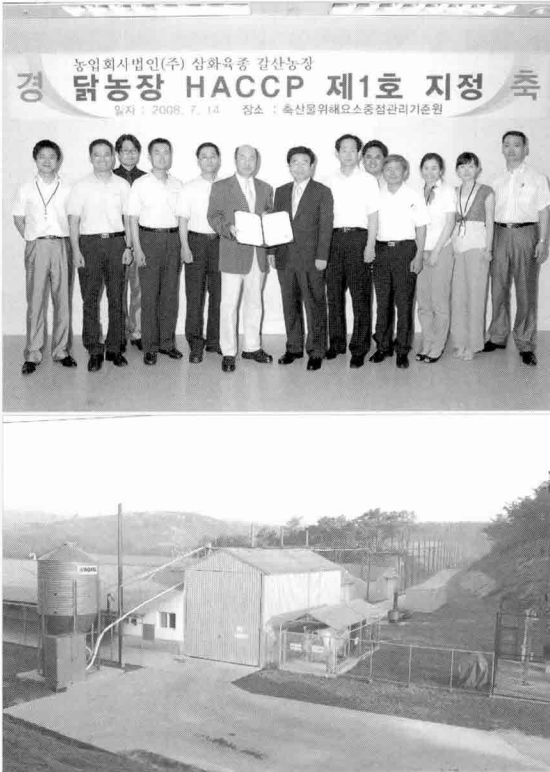


(주)삼화육종

닭농장 HACCP 제1호 지정



(주)삼화육종(대표이사 배성황) 갈산농장이 지난 7월 14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가축사육단계(닭농장)의 1호 HACCP적용 농장으로 지정받았다.

제1호 HACCP 지정 닭농장인 (주)삼화육종 갈산농장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위치한 6만수 규모의 원종계장으로 HACCP 지정과 더불어 한층 더 안전성이 확보된 육용종계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화제의 현장' 69P 참조).

(주)우성사료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부회장 지평은)는 지난 7월 10일 대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2008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남은 하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영업을 비롯한 각 분야의 중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하반기 전략 발표로 이어졌다.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오종균 상무이사는 "지난 상반기 동안은 농장의 수익실현을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축종별 전문화를 실시했고 이젠 안정화 단계로서 그 결과들이 실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우성사료는 지난 상반기 동안 10회의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비롯해 108건의 실증 DM을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기술서비스 확대와 입증판매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노사관리를 통해 내비비용을 절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가 회사측에 5년 연속 임금협상을 위임하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평은 대표이사는 “고 유가와 고 곡물가를 비롯한 환율 불안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 축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과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의 속도를 달리 하자”고 당부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축산전문회사(주) 우성사료는 사업의 근간이 축산인에게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축산인과 함께 발전할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2008 우성사료 한마음교육’ 실시



(주)우성사료는 지난 7월 11~12일, 25~26일 2차례에 걸쳐 경북 문경에 위치한 문경관광호텔에서 ‘2008 우성한마음교육’을 실시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영업, 관리, 생산관련 모든 조직원이 참석해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팀 리더십’를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첫 강사로 나선 국민대 강신돈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경제의 흐름과 한국이 처한 위치를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설명하며 기업이 나아갈 지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조직에서의 리더는 필요한 덕목을 갖추고 팀워크를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내용의 강의를 비롯해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일차를 마감하고, 다음날 새벽 참가자 모두가 1,075m의 주출산 주봉을 등반하며 조직의 단합과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1박 2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평은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가 어려운 요즘 심신을 단련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위기를 돌파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서부사료(주)

무결함 공장 인증 획득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가 지난 7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 사후검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서 결함이 전혀 없는 무결함 사료공장으로 당당히 인증받았다.

지난 2006년 6월 HACCP 인증 공장으로 지정된 서부사료는 최초 지정 후 작년 사후심사도 거뜬히 통과했고, 올해 두 번째 받는 사후심사에서는 결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무결함 공장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HACCP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무결함이라는 거침없는 목표를 향해 전 구성원들이 전력 투구한 결과이다.

서부사료(주)는 2003년부터 5년간에 걸쳐 친환경공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도색, 녹화사업, 최첨단 설비 도입 등 20억원 가량을 투자한데 이어 작년 6월 HACCP 사후심사 인증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8억5천만원 가량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사료를 먹은 축산물의 최종 소비자인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데서 비롯된 실행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클린데이(Clean-Day)를 지정,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써왔다. 이는 친환경적 사고와 경영자적 마인드를 갖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최고품질의 명품사료는 깨끗한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서부사료(주)는 도심 속 친환경공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남다른 방식을 접목한 결과 관련업계 및 타공장으로부터 본보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공장으로 변모함으로써 기존의 딱딱한 공장분위기에서 부드럽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어 직원들의 업무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서부사료 원재곤 생산본부장은 “이번 무결함 공장 인증 획득은 임직원 모두의 단결된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향후 친환경 공장의 선두주자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 사료BU

베트남 빈롱 공장 준공



CJ제일제당의 사료BU(부사장 박호인)는 지난 6월 27일 베트남 빈롱공장 준공식을 거행했다.

CJ빈롱공장은 2001년 베트남 진출이후 건설된 3번째 사료공장으로 연간 3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설비를 위해 총 250만달러(USD)가 투자되었다.

CJ는 베트남이 인도차이나의 중심시장으로 자체 내수규모가 크고 향후 주변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과 경제발전에 의한 육류소비량 증가로 인해 투자여건이 양호하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 10년전부터 활발히 사업영역을 구축 중에 있다.

2001년 준공된 CJ Vina Agri의 룡안성 공장은 연간 22만2천톤 생산능력으로 호치민시 인근으로

양돈, 양계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대리점을 통해 판매해 왔으며, 2003년에는 사업을 다각화하여 새우사료 및 양어사료 공장도 가동 중에 있다.

CJ Vina Agri는 2005년 북부의 하노이 흥옌에 제2공장을 건설하면서 베트남 전 지역으로 입지를 확대했고 우수한 품질과 Brand 인지도에 힘입어 룡안성의 기존 공장도 증설했으며, 금번 빈롱공장의 준공으로 CJ는 베트남에서 연간 37만2천톤 체제로 가동 중에 있다.

CJ의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농축산 산업에 대한 장려 등과 함께 사료시장이 초기 발전 단계라는 면에서 CJ Vina Agri의 전망은 밝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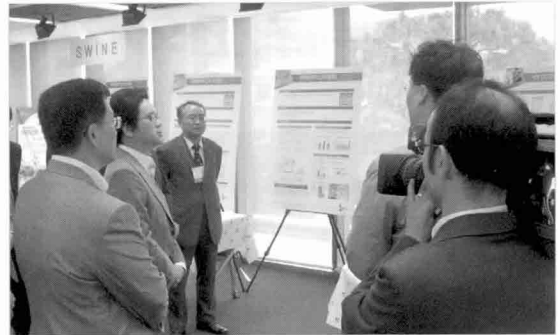
1996년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사료공장을 준공으로 Globalization을 이룩한 CJ사료는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2개 공장과 11개 종계장, 필리핀 1개 공장 과 종돈장, 베트남 3개 공장, 중국 9개 공장, 터키 1개 공장, 인도 판매 거점 확보로 총 6개국 16개 공장, 12개 종축농장 및 1개 판매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이 곧 국내매출 비중을 앞서는 명실상부한 Global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제일제당 사료BU 축산/기술연구소, R&D SHOW CASE에서 호평

CJ제일제당 사료BU 사료/축산연구소는 지난 6월 27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CJ인재원에서 거행된 CJ R&D SHOW CASE에 참가했다.

CJ R&D SHOW CASE는 CJ제일제당 산하 각 연구소의 신제품 및 신기술을 전시하여 전사 임직원들에게 공유하는 자리이다.

CJ는 작년에 출시한 퍼펙트 마이스터, 독심, 프



리미엄 광어EP 제품들과 함께 CJ 온리원 정신으로 탄생한 낙농전산프로그램인 SMART FARM PROGRAM, 차별화된 TMR사료 등을 선보여 임직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CJ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식품, 바이오의 획기적인 첨단 기술을 사료 개발에 응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사료BU 부스를 방문한 이재현 회장은 “CJ 온리원 정신의 실천은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R&D 분야는 온리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특히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J 사료/축산연구소는 1987년 설립 이래 축산농가에 안전하고 고효율의 사료 및 과학적인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된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해외에 선진 축산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CJ 사료/축산연구소는 2008년에는 고객 건강을 위한 무항생제 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N, P 저감 사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브랜드 전용 사료를 개발함과 동시에 국내외 유명 대학,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